

Discourse Analysis on Momchoong Calling: Based on Analysis of Articles

Kim, Yi-Gyung (Sookmyung Woman's University)

Yoo, Mi-Sook¹⁾ (Sookmyung Woman's University)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phenomenon of Mamchoong-related discourse being formed and practiced through the analysis of articles on Mamchoong in society where the names of abomination, emotion and disgust, emerged as social problems. Through this analysis, we wanted to discuss how the hateful call for some young mothers is conveyed, influential and what the discourse is about. For analysis, we searched and selected articles related to the Mamchoong through the Integrated Search System of the Korea Press Promotion Foundation and Naver News Search. The selected article underwent text analysis, discourse analysis and social analysis according to the method and process of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article is reported in the form of a simple issue report, expanding controversy and reproducing. Second, the main topics discussed in the article were the definition of Mamchoong, the expression of disgust, the spread to social issues, the eyewitness of issues, the controversy of harm and damage. Third, while Mamchoong is showing signs of broadening its scope, it is found that alternative discussions are needed because it does not extend to alternative discussions, such as hate discourse and Gender discourse.

Key Words : Momchoong calling, discourse through articles, discourse analysis, hate

1) Corresponding Author: Yoo, Mi-Sook, Sookmyung Woman's University, Cheongpa-ro 47 gil 100 (Cheongpa-dong 2ga), Yongsan-gu, Seoul, Korea, 04310 / E-mail: msyookr@gmail.com

맘충 호명에 대한 담론 분석: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김이경 (숙명여자대학교)

유미숙¹⁾ (숙명여자대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혐오 정서, 혐오를 담은 호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 사회 속에서 맘충 호명에 대한 기사 분석을 통해 맘충 관련 담론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온라인 공간의 논쟁을 넘어 일부 젊은 엄마들을 향한 혐오적 호명이 어떻게 전달되고,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기에 관련된 담론기제는 무엇인지 논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맘충 호명 관련 기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통합검색시스템과 네이버 뉴스검색을 통해 검색,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사는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법(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방법과 과정에 따라 텍스트 분석과 담론분석, 사회적 분석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결과 첫째, 기사는 단순 이슈보도 형태로 가장 많이 전달되어 논란을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기사에서 다뤄진 주요 담론 주제는 맘충이라는 신조어 정의, 혐오 표현, 사회적 이슈로 확산, 이슈의 목격자, 가해·피해 논란이었다. 셋째, 맘충 호명은 그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혐오 담론, 젠더 담론 등 거대 담론이 확대되는 추세에 비해 대안 담론으로 확장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안적 담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맘충 호명, 기사 담론, 담론분석, 혐오

1) 교신저자: 유미숙, (0431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E-mail: msyookr@gmail.com

논문투고: 2019. 2. 19 / 심사일자: 2019. 2. 27 / 게재확정일자: 2019. 3. 14

I. 서론

‘KTX 맘충’, ‘스타벅스 맘충’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맘충’이라는 말은 공공연히 사용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된 다수의 혐오 표현 중에서도 맘충은 주요한 혐오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2017년 기획기사로 10~30대를 대상으로 혐오 대상 단어로 연상되는 이미지를 설문한 결과 맘충은 김치녀, 이주민, 동성애와 함께 대표적 혐오 이미지로 선택되었다(이효상 외, 2017.7.1). ‘맘충’은 ‘맘’ (mom)이라는 단어에 벌레 ‘충(蟲)’을 붙인 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는 것으로 비취지는 엄마들을 비하하는 용어다. 온라인상에서 처음 ‘맘충’이라는 호명이 등장한 것은 2015년이다. 자기 아이만 챙기면서 음식점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게시하거나, TV 프로그램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며 인터넷 방송 채팅창을 도배하던 ‘ㅇㅇ맘’ 등을 비난할 때부터 호명되기 시작했다. 이후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거나 둘둘 만 기저귀를 식당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치고 가는 일부 엄마들을 비난하는 말로 쓰였다. 그러더니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육아의 고됨을 호소하는 엄마들까지 호명하는 양상으로 변지고 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레로 불리는 대상이 비단 엄마들만은 아니다. 급식충, 지방충, 한남충...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일종의 유행어처럼 사람들이 벌레의 한 종류로 호명되곤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염려가 지나치다며 ‘진지충’이라고 부를 만큼 일종의 별명 놀이로 취급하기도 한다. 초등학생은 학교 급식만 축낸다고 ‘급식충’, 자전거 타고 도로에 나서 민폐를 끼친다고 ‘자전거충’, 지방에 살면 ‘지방충’, 누구를 가리지 않고 비하와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너도나도 벌레로 불리니 일부 엄마들이 ‘맘충’ 소리 좀 듣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 어차피 지나갈 유행이라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특정 행위자를 향하던 ‘맘충’ 호명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 또한 ‘된장녀’, ‘김치녀’ 같은 여성 혐오 단어의 흥수 속에서도 비껴나 있던 ‘엄마’를 향한 혐오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현상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혐오의 표적집단으로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는 흔히 언급되지만 전 세계의 혐오표현 연구 및 보고 중 아이 엄마를 표적 집단으로 설정한 것은 이례적이다(홍성수, 2018)

누군가를 특정한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가 언어적 기표를 넘어 담론과 사회적 현상까지 확대된다면 ‘호명’의 의미와 영향력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Althusser(1971)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주체라는 범주의 작동을 통해서 구체적 개인들을 구체적 주체로 호명한다.’고 말했다. 호명을 통해 모든 주체는 범주화되고, ‘상상적으로’ (imaginary) 불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서 상상적이란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 관계를 맺으면서 상징화되는 것이다. 상상적 호명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주창윤, 2011). ‘호명’은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고 불리는 이의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어떤 현상이나 경험은 그것이 하나의 이름을 얻고 제도의 도움을 얻어 유포되면 그와 유사한 관련 경험이나 현상들이 그 이름 아래 범주화되고 특정한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한다(서덕희, 2003). ‘맘충’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이라면 동일한 행동을 한 엄마들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거나 설명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불쌍사납다’, ‘무개념이다’라고 표현했을 행위나 상황을 ‘맘충’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무개념과 맘충, 언뜻 비슷한 의미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맘충이라는 호명에는 ‘혐오’라는 정서가 담겨있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 분리되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가 덧씌워지는 것이다. 혐오는 사전적으로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혐오의 정도는 사전적 의미보다 더 강렬하다. 스투어트 윌턴은 혐오가 ‘인간다움을 조건 짓는’ 대표적인 정서 중 하나라고 하며, 혐오의 촉발이 침이나 콧물, 가래, 귀지, 오줌, 똥, 정액(생리혈) 같은 고약한 신체 분비물이나, 썩거나 끓는 생물학적 과정의 구체적인 예에 뿌리를 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모른척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생명윤리학자 레온 카스는 혐오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원한 것들 위반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감정’으로 건강하고 단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동으로 정의했다(손희정, 2015 재인용). 이렇듯 혐오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대상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혐오를 느끼는 주체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분리하고, 혐오의 대상을 불쾌하고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된다. 즉 같은 행동이라도 혐오를 담은 ‘~충’이라고 이름 붙여질 때 더 강한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Michel Foucault는 말에 내재해 있는 권력을 분석해내면서 담론과 권력의 관계를 드러냈는데, 말은 항상 일정한 권력관계를 함축하는 제도적 장(場) 속에서 변화한다고 하였다(김성옥, 1999). ‘맘충’이라는 호명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맘충’ 호명의 탄생은 ‘절합’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절합은 언어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요소, 즉 음성 기호와 그 기호의 의미 사이의 결합방식을 일컫는 개념이며, 이 결합방식이 일정한 힘의 관계를 반영(politics)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푸코는 이 힘의 관계, 즉 어떤 권력에 의해서 기표와 기의가 연결될 때 ‘진실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강희룡, 2015).

Foucault가 말하는 권력은 비단 정치권력뿐 아니라 누군가가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의 권력이다. ‘맘충’ 호명은 어떤 대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혐오스럽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지어진다는 것,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사람이 권력관계를 매개로 구성된다

는 점에서 담론 체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맘충 논란이 이슈화된 계기 중 하나가 ‘맞춤형 보육정책’ 으로의 전환 발표임을 볼 때 담론 형성과정에 사회문화적 맥락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불리던 ‘맘충’ 호명을 오프라인으로 확장시키는 통로인 기사의 양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런 과정에서 그 안에 담긴 담론을 분석해 ‘맘충’ 호명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탐색해보면 혐오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김지혜, 이숙정 2017; 장소연, 류용재, 2017), 혐오 발화의 양태를 분석한 연구(허라금, 2018), 혐오 표현의 자유와 법적 제한에 관한 연구(이광진, 2017; 조규범, 2017; 정다영 2018), 페미니즘 시각(김은주, 2016; 송명희 2017; 정인경, 2016)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2010년대 중후반에 등장해 사회적 문제가 된 다양한 혐오 문제를 다루었다. 호명과 관련한 연구로는 온라인 여성호명 담론에 관한 연구(황슬하, 강진숙, 2015), 젠더 호명과 이에 따른 경계 짓기 문제를 고찰한 연구(주창윤, 2011)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호명을 연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혐오 문제를 다뤘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을 넘어 확산되는 특정 대상에 대한 호명 현상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담론들이 어떤 양상으로 논의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주로 쓰이던 ‘맘충’ 호명이 확산되며, 담론 체계로 영향력이 확산된 계기로 뉴스 기사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사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전통적이며 강력한 통로이며,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 특정한 방향으로 구성된 담론이 보도자료나 신문기사처럼 공적 특성, 대중적 특성을 함의한 매체에 의해 대중 앞에 설 때, 영향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 이르게 된다(서혁, 편지윤, 류수경, 2015). 맘충 호명 담론이 힘의 관계, 대상에 대한 분리와 배제가 담긴 혐오 정서를 바탕으로 한다면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왜곡될 위험이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맘충’ 호명의 이유로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을 지적한다. 이 같은 양상을 연구하면서 이상적인 어머니 노릇, 모성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지, 현시대의 모성담론을 나눌 필요가 필요하다. 모성은 사전적으로 ‘여성이 어머니로서 갖는 본능이나 성질, 어머니로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기능’ (금성출판사, 1997)을 말한다. 그러나 모성은 사회적·제도적 측면의 모성, 사회·관습에 따른 모성, 육체적 모성 등 다양하게 해석되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관념적 측면도 있다(Lerner, 1993). 어머니 노릇, 모성에 대한 논의는 곧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나 가치관을 사회적 장에서 논의할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모성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모성을 찬양하거나 거부하는 추상적 문제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자녀

공동양육의 사회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손소영, 2013). 맘충 호명을 통해 모성담론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녀 교육과 양육 문제를 사회적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은 이처럼 담론이 특정 주체나 집단에 의해 구성되고, 특정한 방향으로 왜곡되어 현실을 구성하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등장하였다(서덕희, 2006).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text) 분석을 통해 미시적 의미와 함께 사회 정치적 의도, 담론 권력의 영향력, 담론 권력이 작동되는 사회적 맥락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담론 분석과 구분된다(조진욱,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사 분석에 적합한 방법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맘충’ 호명과 관련된 기사를 담론의 장으로 바라보고, ‘맘충’ 호명의 맥락과 함의를 찾아가고자 한다. 현재 나타난 담론 양상을 통해 엄마 역할, 양육, 모성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들이 사회적 장에서 오가고, 건강한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의한 바에 따라 기사 분석을 통해 맘충 호명과 관련된 텍스트와 담론을 분석하고 담론들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정하였다.

첫째, ‘맘충’ 호명과 관련된 기사의 텍스트를 분석해 그 형태와 내용, 구조가 어떠한지 분석한다.

둘째, ‘맘충’ 호명 기사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주제와 담론들을 파악하고, 사회적 맥락과의 관련성과 의미를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맘충’ 호명과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시스템’ (www.kinds.or.kr)과 네이버 기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맘충’이 온라인상에서 먼저 호명되기 시작했고,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상에서 이슈가 되어왔던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점에 주목해 온라인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된 기사를 포함해 분석대상으로 했다. 또한, 텍스트 기사화된 방송사 뉴스도 포함하였다. 제목에 ‘맘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검색하였으며, 검색 기간 설정은 맘충 호명이 시작된 2015년을 기점으로 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맘충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는 현재까지, 2018년 11월 31일까지로 하였다.

검색 결과 위의 검색 기간 동안 ‘맘충’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 중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고 총 456건의 기사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기사는 단순보도, 사설 및 칼럼, 인터뷰 등으로 분류되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에 따라 기사를 분석하였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언어와 언어사용이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이고, 이 수행 형태인 담론은 사회 영역과 관계 맺는 사회적 과정이자 실재를 구성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중요한 가정으로 한다.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text) 분석,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 사회적 분석(social analysis)을 세 가지 차원으로 한다(Fairclough, 1995; 2001, 2003). 이런 과정을 통해 담론이 텍스트의 일부일 뿐 아니라 사회적 분석을 통한 실천으로 이어짐을 강조했다.

먼저 텍스트(text) 분석은 어휘나 문법, 텍스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며 어휘 선택과 동시에 사용 및 접속사 선택을 통한 문장 내 연결성도 파악한다(서덕희, 2003 재인용). 다음으로 담론 분석은 텍스트의 상호작용적 측면, 즉 개별 텍스트들이 생산, 분배, 소비될 때 그 과정의 본질이 무엇인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Fairclough, 2003). 이를 통해 텍스트 실천과 담론적 실천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담론이 추구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김신영, 윤순진, 2015). 사회적 분석은 거시적 차원의 분석으로 분석한 텍스트가 담론 실천을 통해 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과 특징에 따라 맘충 호명과 관련한 주요 담론 내용과 형태를 파악하고 담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실천되는지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텍스트(text) 분석과 담론 분석

가. 기사 생산 주체와 형태 분석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사 텍스트를 통해 맘충 호명에 대한 진술체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기사의 생산 주체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언론사 유형을 파악해보았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언론사 유형별 기사 분포

언론사 유형	기사 건수
중앙지	42(9.2%)
경제지	80(17.6%)
지역종합지	43(9.5%)
방송사	24(5.2%)
기타	30(6.7%)
인터넷 전문 매체	232(50.8%)
인터넷 매거진	5(1%)

맘충 호명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룬 언론사 유형은 인터넷 전문 매체로 전체 456개 기사 중 50.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온라인상의 이슈나 논란거리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전문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제지가 17.6%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경제지들이 다양한 이슈나 가십을 다루는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중앙지에서 다룬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중앙지에서 다룬 42건의 기사 중 22건(52.3%)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논란거리를 단순 보도한 것이어서 논란 이면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맘충 호명 기사를 다룬 기사의 형식을 구분해보았다. 기사의 형식을 구분한 이유는 언론에서 기사 형식을 통해 맘충 호명을 어떤 시각과 방식으로 바라보는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기사 형식 분류

기사 형식	칼럼	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	단순 이슈 보도	기타
기사 건수	29(6.4%)	80(17.5%)	308(67.5%)	39(8.6%)

분석된 내용과 같이 맘충 호명을 다룬 기사의 형식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단순 이슈 보도 형식으로 전체 기사 중 67.5%를 차지했다. 뒤이어 대중들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 기사가 17.5%였으며, 칼럼은 6.4%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논란이 된 목격담이나 논쟁거리를 기사의 형식을 빌려 재생산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준다.

나. 분석에서 드러나는 주요 담론주제

1) 맘충이라는 신조어 의미 전달

맘충 호명 기사에 담긴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기사가 처음 등장한 시기부터 주요하게 다뤄진 주제와 그 안에 담긴 핵심어를 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맘충이라는 호명이 처음 기사화된 것은 2015년 7월로 31일로 “ ‘맘충’ , ‘맘혐’ 아시나요… 눈총받는 KTX 무개념 엄마들”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등장한 뉴스1의 온라인 기사였다. 이밖에도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무개념 ‘맘충’ 혐오 대상으로” (머니투데이, 2015. 8.17), “맘충… 여성비하를 넘어 이제 모성비하?” (SBS 텍스트 뉴스, 2015.8.19.), “우리 엄마도 맘충이에요?” (머니투데이, 8, 24) 등 ‘맘충’ 이라는 신조어 등장에 놀라움을 표시하거나 맘충의 뜻을 전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사들은 맘충이라는 호명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맘충이라는 말을 듣는지 예시를 들면서 일종의 구별, 경계 짓기가 되기도 한다.

한편 아직 “무개념 자식사랑 ‘맘충’ 향한 비난 모성에 대한 일방적 혐오 확산 우려”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는 맘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체 단어를 소개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맘충을 대체할 단어로 ‘무념충’ 을 제안하고 있다.

“이기적인 사람이 우연히 엄마였을 뿐, 엄마였기 때문에 이기적인 건 아니라는 지적이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받으며 맘충 반대론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엄마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무개념을 비난하는 신조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맘충’ 보다는 ‘무념충(무개념+별레충)’ 정도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국민일보(2015.8.31.)]

이 기사는 맘충이라는 호명이 엄마라서 비난받는 양상이 될까 염려하면서도, 또 다른 혐오단어를 제안하는 역설을 보여준다. 이처럼 처음 맘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기사화된 텍스트들은 당혹스러움이나 호기심을 담고 있다. 맘충의 뜻을 전하며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 회원들의 경험담들을 신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각각의 경험담들을 통해 어떤 행동이 맘충이라 불리게 되는지 다시 소개하는 통로가 된다.

<표 3> 주요 담론 주제와 핵심 어휘 분석

주요 주제	핵심 어휘
맘충이라는 신조어 의미 전달	맘충 뜻, 무개념, 아기 엄마
혐오 표현	김치녀, 된장녀, 한남충, 혐오 발언, 별레, 처벌
이슈 목격자, 피해자와 가해자 논란	무개념, 식당 맘충, 비행기 맘충, KTX 엄마, 꿀볼견 공항 맘충, 공공장소, 240번 버스, 태권도 맘충, 미미쿠키, 김포맘카페
제도와 사회적 이슈 속 호명 확산	전업주부, 맞춤형 보육정책, 종일반 제한, 노키즈존, 카페, 식당, 아이 혐오, 출입금지

2) 혐오 표현

2015년은 한국 사회의 헬조선, 여혐, 남혐 등 혐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본격 등장해 논의가 활발해진 시기이다. 맘충 의미와 엄마도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기사들에 더불어 2015년 10월부터는 맘충 호명이 혐오 문제 중 일부로 포함되어 다뤄지기 시작한다. 혐오 담론이 거대 담론으로 확장되면서 그 안에서 맘충 호명이 다뤄진 것은 맘충 담론이 사회적 장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혐오와 관련된 여러 신조어들 중 하나로 다뤄지는 경향도 보인다. 혐오 담론 주제로 분석된 기사들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맘충’ ‘진지충’ 우리가 별레인가요” (파이낸셜뉴스, 2015. 9. 29), “ ‘한남충’ ‘맘충’ …별레가 된 한국 남녀” (머니투데이, 2015.10.4.), “ ‘김치녀·맘충’…무분별한 혐오 발언 처벌은” (매일경제, 2015.10.8.), “2015 대한민국 혐오 리포트- 맘충, 급식충…별레가 된 사람들” (헤럴드경제, 2015.10.14.), “[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맘충·한남충·급식충… 차별·비하 일상이 된 한국” (세계일보 2017. 2.3).

혐오 문제 맥락에서 맘충 호명을 다룬 기사는 전문가의 분석과 그 기저에 영향을 미친 사회 경제적 배경, 처벌 방안 등을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아래 기사 예시와 같이 어찌다 서로를 별레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자조 섞인 시각에서 다루는 데 머무르기도 하였다. 아래 기사의 예처럼 해법을 부각하며 그 안에서도 ‘일부 엄마들의 무개념 행동이 맘충 논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라는 내용은 혐오 반대보다 엄마들의 각성을 독려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며 양비론적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맘충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혐오 표현이란 점에서 지양해야 할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된 맥락은 사회적으로 짚어볼 만한 의미가 있다. 아이를 내세워 배려 없는 행동을 하는 부모들에 대한 불만이 축적된 단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카페에서 일하는데 한 엄마가 카페컵에 아이가 소변을 보게 하고 그대로 두고 나갔다’, ‘파스타를 파는 레스토랑에 와서 아이가 먹을 밥과 국을 서비스로 달라고 우겨서 난감했다’ 등 개념 없는 부모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아이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자신의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상대방에게 화를 냈다는 글이다.” (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일부 몰지각한 부모 가리키는 ‘맘충’ … 또 다른 혐오 낱어, 세계일보, 2017.8.1.)

3) 제도와 사회적 이슈 속 호명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던 맘충 호명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 전환 발표, 노키즈존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별적인 목격담이나 에피소드 중심에서 사회적 장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맘충 호명이 확산되었고, 이런 상황이 기사화되었다. 기사의 주요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반발 거세…포털 뉴스 게시판엔 ‘맘충’ 원색 비난” (국제뉴스, 2015, 9, 13), “전업주부가 ‘맘충이’?…왜 이들이 욕을 먹어야 하나” (SBS 텍스트 뉴스, 2015, 9, 14), “전업주부는 맘충… 직장맘 - 전업맘 갈등 폭발시킨 보육정책 후폭풍” (헤럴드경제 2015.9.17.).

기사들은 맘충 소리를 들어야 하는 전업주부의 억울함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으며, 직장맘과 전업맘의 갈등이 부각된다는 내용이었다. 정책의 효과나 추후 대책, 제도 변화 이후 엄마들의 대처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기사는 없었다. 이 시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타겟이 되면서 커뮤니티에서는 만 3세까지는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데 전업주부가 왜 아이를 남에게 맡기냐는 비난이 일었다.

맘충 호명 담론의 특징은 엄마와 아이가 짝을 이루어 언급된다는 것이다. 애초에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라 아이와 관련된 이슈는 분리될 수 없지만, 특히 노키즈존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맘충 호명도 짝을 이뤄 다뤄졌다.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다.

‘맘충이’ 와 ‘노키즈존’ (아시아경제, 2016.3.15.), ‘맘충혐오, 아이혐오? 노키즈존 유감’ (노컷뉴스, 2017.5.31.), ‘[지금 SNS에선] 맘충과 노키즈존’ (경향신문, 2017.7.9), ‘맘충

은 노키즈존에서 나가라는 당신께’ (한겨레, 2017.8.27.) 등으로 논란 초반에는 노키즈존에 대한 유감을 다루었다. 이후 기사에서는 노키즈존 반대와 찬성 입장을 다루며 왜 아이 손님을 거부하는지 아르바이트생이나 운영자의 입장을 함께 다루거나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예를 들면 ‘맘충·노키즈존’, 공존은 가능한가?(노컷뉴스, 2017.9.1.), ‘노키즈존 생겼으면...’ 알바생 76% ‘맘충 논란’ 현실 공감(국민일보, 2017.10.25), [월드리포트] 한국의 ‘맘충’과 일본의 ‘노키즈존’(SBS, 2017.9.23.).

맘충 호명과 관련된 노키즈존 기사의 수는 18건이었으나 다른 담론에 비해 아이와 부모, 소비자,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차를 담았다.

4) 이슈의 목격자, 가해자와 피해자 논란

맘충 목격담은 꾸준히 맘충 호명 기사로 다뤄졌다. 기사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맘충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한 것이다. 기사들의 주요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정당 vs 맘충’ 항공권 업그레이드 영작 부탁글 논란(헤럴드경제, 2015.9.1.), 내 아이한테 반말했니? 도 넘은 맘충에 온라인 ‘부글부글’ (국민일보, 2015.10.3.), ‘무료 셀러드 5번 리필 했다고 맘충 소리 들어야 하나요?’ (인사이트, 2017.5.29.), 맘충, 싱가포르 공항에도... ‘같은 한국인인 게 창피해’ (헤럴드경제, 2017.8.24.).

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특성상 자극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목격담과 비난 댓글들을 그대로 소개하는 기사들이었다. 익명 커뮤니티의 특성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에도 SNS 이슈라는 이름을 달고 논란거리를 기사 형태로 제공한다. 이런 기사들은 다시 커뮤니티에 소개되기도 하는 등 맘충 호명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각종 사건, 논란과 관련된 인물이 ‘맘충’ 으로 지목되고 기사화되면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직접 겪었다는 목격담에서 맘충으로 호명된 대상이 익명의 누군가였다면, 논란의 된 사건은 특정 인물이 맘충으로 지목된다. 특정 사건이 맘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며 사건 당사자, 특히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을 ‘000 맘충’ 이라고 호명하는 것이다. 기사는 이런 호명을 그대로 옮겨 쓰며 논란을 공론화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240번 버스 맘충’, ‘태권도 맘충’, ‘김포맘카페 맘충’ 이 있다. 해당 기사들은 해당 논란에 맘충 호명을 덧붙인 헤드라인을 가감 없이 사용했다.

240번 버스 사건 ‘맘충’ 논란까지 비약... 2차 피해 우려(뉴시스, 2017.9.13), 240번 버스 목격담 확산 ‘여초카페’ 로부터... 맘충 비하로 번졌다(헤럴드경제, 2017. 9. 12.). 동네 태권도 학원 포함했다가... ‘맘충’ 으로 조리돌림(서울신문, 2018.7.5.). ‘태권도 맘충’, ‘난폭 운전 주장’에서 시작... 블랙박스로 상황 반전(서울경제, 2018.7.6.) ‘오마이갓!’ 태권도 맘충, 마침

내 조롱의 대상? ‘블박 반전드라마’ 있었다. 치밀함 없어서 망신만?(이코노미톡뉴스, 2018.7.6.). 태권도 맘충 자필 사과문 작성 ‘관장님 만나 사과…물의 일으켜 국민께 죄송’ (동아일보, 2018.7.6.). ‘김포맘카페 폐쇄하라 국민청원까지…’ 맘충 향한 엄마들 분노 ‘극에 달했다’(서울경제, 2018.10.16).

이상의 사건이 기사로 옮겨진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피해자라며 맘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추후 거짓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다. 해당 사건 보도의 특징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인터뷰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엄마들, 사건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맘충’이라는 단어를 폭넓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 당사자가 아이를 동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어도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맘충’으로 호명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이는 맘충 호명이 처음 시작될 때 양상과 달리 이미 맘충 호명이 고유명사처럼 확대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건 당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화제와 맞물려 ‘태권도 맘충’ 기사는 194건으로 검색되었으며, 사건 당일부터 사흘간 187건이 기사화되었다.

2. 사회적 분석을 통한 실천적 함의

Fairclough는 담론은 사회적 실천의 형태 중 하나로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거나 제한받는 동시에 사회적 실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Fairclough, 1992).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 담론분석에 따라 마지막 단계로 기사 담론의 사회적 형태와 실천을 위한 한계점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맘충 호명 기사의 주요 담론과 사회적 맥락을 관계를 탐색하였다.

첫 번째로 텍스트와 담론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젊은 엄마들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바람직하다고 요구하는 양육에 대해 분석하였다. 맘충의 특징을 규정할 때는 정의적 개념보다 자신의 경험담과 목격담을 통해 고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거나 기사화된 맘충 목격담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기저귀 갈기, 카페 머그컵에 소변 받기, 공공장소에서 아이 내버려 두기 등이다.

그렇다면 맘충과 맘충 아닌 사람들을 구분 짓는 일종의 경계, 기준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소리를 듣지 않은 양육방식이 따로 있는 것일까? 푸코는 광기와 합리성에 대한 개념을 예로 들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합리적 이성의 소유자가 아니라, 광기를 배제하면서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다. 마찬가지로 ‘맘충’이라 호명하는 사람들은 아이

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를 정의하거나 합리적 개념을 논의하기보다 배제의 방식을 택한다. ‘나쁜 양육’, ‘나쁜 모성’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맘충’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맘충’을 호명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나쁜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존의 기준, 일종의 선이해는 무엇일까 탐색이 필요하다. 다음의 글과 맘충에 대한 기사를 비교해본다.

“아기로부터 해방되어 즐겁게 노는 도시의 엄마들은 그 노는 동안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여성들은 자기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아기 낳기를 거부하려 든다. (중략) 무엇보다도 사람의 도덕심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각자가 맡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자의 의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의 도덕적 질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가정의 중심인 여자에게 그 일차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중략) 가정에서의 즐거움은 가족간의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어머니와 아기의 애정은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집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든다.”(루소, 2000).

이 글은 루소가 1762년 출간한 ‘에밀’에서 모성에 대한 의무와 역할을 이야기한 것이다. 일견 오전에 카페에서 모여 이야기 나누는 엄마들을 ‘맘충’이라 호명하는 현 실태를 빗댈 수 있다. 당시 아동에 대한 루소의 시각은 근대의 혁명적 사건으로 꼽혔지만, 양육에 대한 시각은 근대의 것일 수밖에 없다. 지금도 양육방식이나 모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18세기와 닮아있다는 점은 사회적 장에서 ‘맘충’ 호명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해야 할 시사점을 준다. 18세기에 어머니 역할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숭배가 나타나는데, 모성신화가 그것이다. 모성신화는 18세기에 시작되어 19세기에 번창하였고, 20세기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모성 이데올로기가 서서히 변화하는 단계를 거쳤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에는 어머니 노릇이 권력 수단이 되기도 하고, 20세기에는 직업과 어머니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이후 21세기에는 ‘내가 인생에서 어머니라는 경험을 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변화되어 왔다(서수경, 2002 재인용).

한국은 짧은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어우러진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여성들에게 모성이 현대처럼 강조된 것은 한국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였다(윤택림, 2001). 한국에 근대적인 모성담론이 유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1923년 9월 발간해 1934년 폐간한 <신여성>을 통해 당시 모성담론을 엿볼 수 있다. 이때 육아는 지혜롭고 강한 ‘새국민’을 길러내는 범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이 잡지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가, 양육 전문가 등이 육아 노하우를 알려주며 구시대의 부모노릇 정확히는 구여성과 신여성의 가치를 이항대립으로 나열했다(홍지아, 2014). 한국은 광복 후, 급격한 정치적 변화와 1960년

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봉건체제인 전근대적 질서가 근대 체제로 완벽하게 바뀌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급격히 부상한 중산층은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면서 아내가 가정주부로서 자녀 양육을 전담하게 되는 계층으로 등장했다(서수경, 2002). 1990년대에 들어서 경제력 상승과 함께 높은 교육열은 유아산업과 사교육 시장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또한 1980~1990년대에 들어서 어머니 역할이 커지며 가정주부 역할보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역할이 더 증대되었다(윤택림, 2001). 이 같은 흐름은 어머니들에게 여러 갈등과 모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여성들은 모성과 자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된다(채성주, 2009). 또한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녀의 신체적 양육보다 정서적 양육 측면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손소영, 2013).

한국에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주체가 된 것도 40여 년 안팎, 그 역할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시간이다. 그 사이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2015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전체 부부 중 맞벌이 비중은 2006년 39.1%에서 2010년 41.4%로 늘었고, 작년에는 41.7%로 집계됐다. 역할 혼돈을 겪기 쉬운 상황에서 여전히 돌봄과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는 모성담론으로 <82년생 김지영>에 공감하는 엄마들과, 맘충 호명이 맞서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의 장이 열리고, 제도적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맘충 호명 기사 분석을 통해 맘충 호명을 확산시킨 계기인 맞춤형 보육전환 정책 발표와 노키즈존 논란을 살펴본다. 보건복지부가 전업주부 아이의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느냐는 논쟁과 함께 ‘맘충’에 대한 비난이 격렬해졌다. 실제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 전환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발표한 2015년 9월 12일을 기점으로 여성 혐오 담론의 주요 생산지로 꼽히는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도 ‘맘충’ 관련 게시글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또 관련된 기사에는 전업주부들을 비난하는 댓글들과 함께 ‘맘충’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기사에서도 단순한 신조어 설명에서 나아가 논란 상황을 전하며 맘충 호명을 쓰기 시작했다. 또한 “ ‘전업주부는 맘충’ 직장맘-전업맘 갈등 폭발시킨 보육정책 후폭풍 ”이라는 기사는 전업맘의 처지를 반영하는 내용에 ‘예산을 갇아먹는’, ‘카페에서 왁자지껄 수다를 떨며 소일하는’ 등의 표현으로 전업주부가 비난받는 내용을 짚기도 한다.

전업주부들이 발끈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이제까지 전업주부들이 육아 의무를 정부에 미루고 예산이나 갇아먹는 이기적인 어머니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다. 남편이 출근한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커피숍에서 왁자지껄 수다를 떨며 소일하는 일부 전업주부의 행태가 최근 자주 부각되는 상황과 맞물려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 (헤럴드경제 2015. 9. 17)

또한, 맘충 호명과 관련된 노키즈존 담론은 아이에 대한 출입금지는 곧 그 부모에 대한 출입금지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관련이 깊다. 일견 노키즈존이 소비자 중심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소비자 중 일부인 부모에게는 일종의 차별로 돌아올 수 있다. 어느 쪽이 더 옳고 그른가와 별개로 혐오가 ‘차별’과 ‘배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볼 때, 노키즈존은 또 다른 혐오를 낳을 수 있는 표식이 될 수도 있다. 노키즈존은 아이와 엄마에 대한 혐오를 실행에 옮긴 것이므로 그 자체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1월 국가위원회에서도 노키즈존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홍성수, 2018). 이처럼 엄마와 아이를 향한 차별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나 자영업자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기사나 토론회 등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담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텍스트와 담론 분석 결과 나타난 혐오 담론과 ‘맘충’ 호명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맘충’ 호명의 배경으로 2015년 온라인을 넘어 한국 사회를 강타한 정서라 할 수 있는 ‘혐오’ 문제를 들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본 2015년 대한민국은 혐오사회”(이연섭, 2015.12.13.) 등 2015년은 혐오 문제가 주요 담론으로 다뤄진 시기이며, 연구에서도 2015년을 혐오의 시대(손희정, 2015)라 말하며, 사회문화 전반의 혐오 정서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혐오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차별, 계층, 경제 문제 등과 연관돼 다뤄진다. ‘맘충’이라는 말이 온라인 게시판이나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15년 7월로 혐오와 관련된 호명이나 정서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있는 상태에서 불려지기 시작했다. 온라인상에서 지속하여 온 여성 비하, 여성 혐오는 맘충 논란과 맞닿아있다. 2000년대 이후 ‘개똥녀’, ‘된장녀’, ‘김여사’ 등 여성을 ‘~녀’로 호명하는 일들은 마치 계보를 잇듯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00녀’ 현상에서 촉발된 여성호명 담론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의 채널과 결합해 여러 사회문화적 쟁점들을 수반하게 되었다(황슬하, 강진숙, 2014).

이처럼 ‘맘충’ 호명 담론은 혐오 담론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아이 엄마라는 대상의 특성이나 양육에 대한 담론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슈 보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맘충 호명 기사 중 기획기사로 ‘맘충’과 혐오 현상을 다룬 <시사인> 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시사인>은 2015년 417호와 418호에서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 ‘된장녀가 나이 먹으면 맘충이 된다고?’를 각각 커버스토리와 문화면에서 다루었다.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은 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여성 혐오 지도를 그리며, 혐오 아래 숨은 남자들의 열등감이나 사회 구조적 변화를 다루었다. 이어 ‘된장녀가 나이 먹으면 맘충이 된다고?’에서는 여성 혐오가 모성에 덧씌워졌다는 논조로 인 ‘맘충’ 현상을 다루었다. 일부 엄마의 문제를 포착해 전체 엄마로 만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성혐오의 맥락에서만 ‘맘충’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맘충’ 호명과 관련해 당사자인 엄마들의 이야기와 고민, 정책적 고민 등을 담론의 주제로 다루지지는 않았다.

IV. 논의

본 연구는 ‘맘충’ 호명에 관한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으로 기사 검색을 통해 제목에 ‘맘충’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를 선정하였다. ‘맘충’ 호명이 온라인에서부터 이슈화되고 확산되어 왔던 점에 기인해 일간지뿐 아니라 온라인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뉴스들도 포함하였다. 머리기사와 내용을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에 따라 텍스트(text)분석과 담론분석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논의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 텍스트 분석 결과 기사는 단순 이슈보도 형태로 가장 많이 전달되었다. 기사 내용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특정인의 양육방식에 대한 목격담이나 경험담을 그대로 실는 비중이 높았다. 이런 방식의 기사 생산은 온라인상의 논란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기사가 다시 커뮤니티로 옮겨지고, 댓글을 통해 혐오 담론이 재생산되는 양상을 낳기도 했다. 익명성을 대표로 하는 온라인 문화의 특성상 이러한 순환은 ‘맘충’ 호명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더 쉽고 가볍게 비난이나 비하, 혐오 담화를 쏟아내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혐오 담론과 문화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확산되며 익명성을 무기로 한 혐오 표현들 역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도처에 편재하고 가볍게 발화되고 있다는 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장소연, 류용재, 2017).

둘째, ‘맘충’ 호명 기사에서 분석된 주요 담론 주제는 맘충이라는 신조어의 의미 전달, 혐오 표현, 제도와 사회적 이슈 속 호명 확산, 이슈의 목격자와 가해자, 피해자 논란이었다. 분석된 기사 담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슈의 목격자와 가해자, 피해자 논란이었다. 특히 이슈의 목격자와 가해자, 피해자 논란은 시기별로 봤을 때 가장 늦게 기사화되기 시작했음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사건이 이슈화된 시점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중복되어 쏟아지거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새로운 정황을 시시각각 기사화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무엇보다 ‘태권도 맘충’ 처럼 온라인상에서 이슈화된 사건의 대상자가 아이를 동반하지 않았음에도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도 ‘맘충’으로 호명되는 식으로 ‘맘충’ 호명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미미쿠키 사건’으로 불리는 판매 사기 사건에는 유기농 제품이라고 믿고 산 소비자가 오히려 ‘맘충’으로 불리기도 했다. “ ‘맘충들 멍청’ 구매자 비난으로 변진 ’미미

쿠키 사태’”(중앙일보, 2018. 9. 27)처럼 초기에는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일부 무개념한 엄마들을 호명하는 것이라는 맘충의 정의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사는 구매자들의 억울함과 혐오 호명을 비판하는 시각으로 다루고 있으나,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이나 처벌 등을 다루지는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것은 말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체계인 담론 과정에서는 호명을 통한 주체 구성과정이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호명은 담론적 실천을 통해 개인에게 특정한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주체를 구성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황슬하, 2014). ‘맘충’이라는 호명과 엄마들이 연관된 사건이 만나자, 사건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된 채 ‘맘충’이라는 간단한 말로 표현된다. 담론의 전략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실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물음과도 같다. 푸코는 사람들 사이에는 경계선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려는 힘과 권력이 있다고 했다. ‘맘충’ 호명 담론은 누가 맘충인지 경계를 만들어내며 혹시 자신이 맘충으로 호명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맘카페에서는 어떤 행동이 ‘맘충’ 소리를 듣게 만드는지 엄마들 사이에 댓글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댓글 상의 토론 내용이 “ ‘식당에서 기저귀 갈면 맘충 맞아요’ … 한 아기 엄마의 도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맘충’ 호명이 엄마들에게 양육방식을 논의하는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구조적 맥락으로 담론이 확장되기보다 경계를 강화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셋째, ‘맘충’ 호명은 그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있음에도 혐오 담론, 젠더 담론 등 거대 담론이 확대되는 추세에 비해 주로 이슈 기사로 생산되고 가십으로 소비되면서 대안 담론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회적 분석 과정에서는 파악된 주요 담론 주제들을 양육이나 모성과 관련된 새로운 담론의 필요성, 맞춤형 보육정책 전환이나 노키즈존 논란 등 제도 및 사회 환경과의 관계, 혐오담론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맘충’ 호명은 여러 이슈와 관련되어 있지만, 새로운 담론으로 확장되기보다 더 자극적인 이슈가 등장해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 양상이다.

본 연구는 현재 담론의 형성과 작동 방식을 탐색해 담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하고, 담론이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노키즈존 담론이 구별 짓기에서 나아가 공존 가능한 환경 만들기 담론으로, 보육정책 전환이 일명 ‘직장맘’이나 ‘전업맘’의 갈등으로 좁혀지기보다 진정한 맞춤형 보육이 될 수 있는 논의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주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근대적 모성담론에서 나아가 올바른 양육방법, 좋은 엄마 등의 담론을 반복하기보다 건강한 양육과

엄마 상에 관한 논의,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무엇일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 학습, 정서적 측면에서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시대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맘충’ 호명 연구는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부정적 양육방식을 지목하며 ‘맘충’ 이라고 호명하는 양태를 연구하는 것은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어머니들에게 함께 고민을 나누고, 어머니 노릇이나 모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의 교육, 정서, 미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교육관이나 양육방식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확산되고, 건강한 비판과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양육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는 결국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대안을 담아내거나 엄마들을 향한 혐오의 뿌리와 기저의 사회적 맥락을 담아내지 못한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이슈를 기사화하며 자극적인 내용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기사에서 나아가 주의를 환기하고, 건강한 담론을 생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기사들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맘충’ 호명에 대한 엄마들의 인식과 감정 등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룡(2015). 공교육 정상화, 혁신학교, 그리고 절합의 정치학. **교육과정연구**, 33(1), 1-18.
- 금성출판사(1997).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 김성옥(1999). 담론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8(1), 204-227.
- 김신영, 윤순진(2015). 4대강사업을 둘러싼 한국천주교의 환경담론 분석: 비판적 담론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319-343.
- 김은주(2016). 여성 혐오(misogyny) 이후의 여성주의(feminism)의 주체화 전략: 혐오의 모방과 혼종적 주체성. **한국여성철학**, 26, 103-130.
- 김지혜, 이숙정(2017).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천 전략과 장치의 세속화 가능성.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5(1), 85-113.
- 루소, 장 자크(2000). **루소의 교육론 에밀**. 안인희 (편역). 서울: 양서원.
- 서덕희(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6(2), 55-89.
- 서덕희(2006). “교실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담론의 형성과 그 저항 - 홈스쿨링에 관한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6(1), 77-105.
- 서수경(2002). 근대 모성담론을 통해 본 한국 가족정책의 방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8), 137-152.
- 서혁, 편지윤, 류수경(2015). 보도자료 기사화를 통해서 본 독서 담론 형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13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보도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35, 285-317.
- 손소영(2013). 시대별 모성역할이미지에 관한 TV광고 내용분석. **한국디자인포럼**, 41, 227-240.
- 손희정(2015). 혐오의 시대- 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32, 12-4.
- 송명희(2017). 김명순, 여성 혐오를 혐오하다. **인문사회과학연구**, 18(1), 123-154.
- 윤택림(2001). 한국 근현대사 속의 농촌 여성의 삶과 역사 이해. **사회와 역사**, 59, 207-236.
- 이광진(2017).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법과 정책연구**, 17(1)1, 321-346.
- 이효상, 김찬호, 배동미, 유설희, 유수빈(2017.10.1). 창간기획-혐오를 넘어 (1) 분노와 불안 ‘왜곡된 투사’ ... 세상이 온통 ‘색안경’ 을 썼다. **경향신문**.
- 장소연, 류용재(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혐오의 문화정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메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6(1), 45-85.
- 정다영(2018).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31(2), 123-164.
- 정인경(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연구**, 16(1), 185-219.

- 조규범(2017). 헌법상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과 입법방향. **법학논총**, 24(3), 141-171.
- 조진옥(2016). 위험사회속 자살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85-410.
- 주창윤(2011). 젠더 호명과 경계 짓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5, 299-314.
- 채성주(2009). **근대교육 형성기의 모성담론**. 서울: 학지사.
- 황슬하(2014). **온라인 여성 호명 배제 원리와 주체 구성에 관한 질적 연구: 푸코의 주체구성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황슬하, 강진숙(2014). 온라인 여성호명 담론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8(4), 356-388.
- 황슬하, 강진숙(2015). 온라인 공간의 여성호명 현상과 젠더적 함의. **젠더리뷰**, 38, 14-22.
- 허라금(2018). 혐오 발화, 그 억압의 두 얼굴. **문화와 융합**, 40(4), 65-90.
- 홍성수(2018). **말이 칼이 될 때**. 서울: 어크로스.
- 홍지아(2014).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신여성>과 EBS<부모>가 제시하는 모성의 구성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122, 205-228.
- Althusser, L. (1971).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B. Brewster(tran.). New York & London: Monthly Review Press.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London, UK: Polity Press
-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2001). *Language and power* (2nd ed.).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Foucault, M. (1972). *The birth of the clinic*. London: Tavistock.
- Lerner, G. (1993). *The creation of feminist consciousness from the middle age to eighteenth-seven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